

# 광주시, 차이나 프렌들리 기대감 커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순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에도 긍정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장무(廣場舞)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취소되고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대규모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기약할 수 없던 터라 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교류 활성화와 함께 끊긴 하늘길도 복원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김치국 마시기'에 이르러는 의견도 적잖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증진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교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

## 文대통령-시진핑 중주석, 이달 정상회담 합의

### 교류 활성화 · 끊긴 하늘길 복원 내심 기대해

### 사드배치 입장 여전... "김치국 마시기" 우려도

국 간 협의 결과 자료를 게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특히, 공동 이익을 위해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합의에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올초 중국 관광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광장무 공연이 취소되고, 중국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900여 관광객의 한국행마저 무산되면서 낙담했던 광주시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단위사업별 협업 추진 상황 보고회까지 갖는가 하면 기존 '차이나스 코너'를 '차이나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중국 진출 전 초기지로 상하이 사무소까지 개설한 뒤라 기대감은 적지 않다.

시는 또 광주 청화(淸華)포럼을 비롯 ▲자매 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 ▲한중 청년네트워크 구축 ▲한중 음악축제 ▲중국 대학원생 유치 ▲중국 비즈니스를 운영 ▲한국산 김치 수출시장 개척 ▲의료 관광객 유치 등 주요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들어 G2 중국의

무한 잠재력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차이나 프렌들리 18개 과제, 63개 사업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4개 과제, 18개 사업으로 압축했다.

박상백 시 국제교류담당관은 "사드 악재와 북한 미사일 도발로 한중 관계와 국제 정세가 빠르게 일어 불어지면서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 다음 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류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안에서 상하이, 무안과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 정기 노선도 다시 개설돼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해 한중 경제 국면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은홍 기자

## 동구 두드림 앱, 주민소통 성과 인정 받았다

광주 동구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23회 광주광역시 정보화정책 연합회'에서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앱 동구 두드림'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 환경변화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합회는 동구와 서구, 남구가 각각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동구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홍수 속에 '동구 두드림' 앱이 갖는 특성과 역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구 두드림 앱은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혜택, 교육정보 등 동구의 주요 구성소식을 전하는 '새 소식' ▲문화 행사와 축제, 전시일정을 안내하는 '문화소식'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참여광장'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 서구, 주민자치 결산 위한 자치어울림 한마당

광주 서구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상무시민공원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서구 자치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주민 스스로 참여한 자치활동을 결산하고 다문화가족,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자치활동 결산과 연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솜씨자랑, 체험부스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상무시민공원 특설무대 주변 야외 광장에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나눔장터, 중소기업 우수제품, 다문화가족 등 홍보관이 전시된다.

## 옛 보훈병원 일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청에서 옛 보훈병원 일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인 교수와 도시개발, 교통, 경영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및 청년대표, 사업 관련 공무원 등 총 19명이 참석,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옛 보훈병원 일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테스크포스팀은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해 복합개발 사업의 구조 및 개발 방식, 공공청사 규모, 백운광장 주변 교통 영향 문제, 사업 대상지역 도시관리 계획, 부대시설 중 필수 건설 시설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 북구,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마을복지 성과

광주 북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난 1년간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북구는 1일 오후 2시 시화문(화마을문화관에서) 각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활동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는 주민이 직접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찾아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27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위원이 지역사회 변화와 사회적 성과, 민관협력 등 자체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 광산구, 일자리 페스티벌 700여 시민 다녀가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일자리 페스티벌 현장 면접에 응한 시민 360여 명 중 75명이 취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장 면접 없이 원서를 받은 40개 기업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이날 행사에서 일자리를 구한 시민의 수는 더 늘 것이라는 게 광산구 설명이다.

수완지구 롯데아울렛 광장서 개최한 일자리 페스티벌에 시민 700여 명이 찾았다. 광산구는 채용 부스와 함께 청년 일자리 컨설팅, 지문정성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임형택 기자



## HACCP우수업체 현장 견학 성료

###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식품가공업체 등 방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남도지부(회장 이송자)는 지난 10월 30일 '소비자 HACCP 인증업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HACCP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HACCP인증업체 축산가공업체(화순군) 주식회사 만나 식품가공업체(순천시)를 직접 방문하여 식품의 제조 가공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견학 및 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남도지부 이송자 회장은 "현장 견학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축산물 및 식품 구입 시 HACCP 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최순철 기자

## 호남고속철 나주역사 증축...오늘 첫 삽 뜬다

### 각종 편의시설 · 주차장 대폭 확대...2018년 12월 완공

'나주 천년의 터'로 명명된 호남고속철 나주역사 증축 공사가 내달 초 첫 삽을 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광주 송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광주송정~목포) 구간인 '나주역사 증축공사'가 1일 본격 착공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나주역사 증축은 오는 2018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2015년 4월 디자인 설계공모를

통해 확정된 나주역사 증축 설계안은 천년 목사(牧使)고을 나주의 역사적 흐름을 나이테로 형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천년 고도(古都)와 혁신도시의 조화로운 만남과 나주평야, 나주배 등 지역적인 특성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남본부는 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나주역사를 증축한다.

당초 2185㎡이던 연면적은 4438㎡로 넓히고 엘리베이터 4대, 에스

컬레이터 6대 등 승강장비를 새로 적용해 편의시설을 잘 갖춘 현대식 역사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증축역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문턱 등 장애물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공법이 적용된다.

주차장도 기존 75면에서 239면으로 대폭 확충하고 나주역사를 동·서로 연결하는 보행로를 신설해 지역주민들의 역사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나주역사 증축은 약 46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1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희광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은 "나주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나주역사 증축 공사를 완공 예정일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가 모집합니다"

## 고흥 · 구례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7년 1544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백광호(730101-1644128)  
최 후 주 소 : 광주 남구 독립로 53번안길 8 (백운동)

위 망 백광호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2017년 11월 1일  
공고인 : 박순금  
주 소 : 광주 남구 독립로 53번안길 8 (백운동)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0월 27일  
공고기간 : 2017. 11. 1 ~ 2018. 1. 2

###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7년 154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갑진(820116-1647912)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독립로 91번길 45, 103동 190호(은남동, 남양아파트)

위 망 이갑진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할 신고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2017년 11월 1일  
공고인 : 이윤환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3길 21-2(구교리)  
한정승인수리일 : 2017년 10월 26일  
공고기간 : 2017. 11. 1 ~ 2018. 1. 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